



김래원

한석규

“텐디함 벗고
죄수복 입었어요”

영화 ‘프리즌’ 유건 역 김래원
한석규와의 연기 대결 ‘기대’

배우 김래원(36)이 죄수복을 입고 돌아왔다. 출세욕에 눈먼 속물 검사(드라마 ‘판치’), 로맨틱한 의사(드라마 ‘닥터스’), 친구를 배신하는 조직폭력배(영화 ‘강남 1970’)로 다른 옷을 갈아 입은 뒤다.
오는 23일 개봉하는 영화 ‘프리즌’에서 전직 경찰 유건 역을 맡았다. 한때 검거율 100%를 자랑하는 잘나가는 경찰이었지만, 뺑소니 등으로 감옥에 들어온 인물이다. 교도소의 제왕이자 절대 악인인 익호역을 맡은 한석규와 투톱으로 극을 이끌어간다.
15일 서울 삼정동에서 만난 김래원은 “큰일 났네, 제가 맡은 역할이 없어서...”라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그래도 영화에 관해 물을 때마다 중저음의 차분한 말투로 긴 답변을 내놨다. 전날 영화 ‘프리즌’ 시사회를 본 그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영화가 조금 무겁게 느껴 나옴 것 같아요. 사실 유건이라는 캐릭터가 처음 시나리오상에는 훨씬 더 무겁게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가벼우면서도 작은 재미를 주기

위해 감독님과 오랜 상의 끝에 ‘꼰동’ 캐릭터로 바꿨죠.”
유건은 교도소 입소 첫날부터 다른 재소자들과 주먹다짐하는 등 말쑥을 피운다. 그러다 위기에 처한 익호를 몇 차례 구해주며 그의 눈에 들고, 익호의 오른팔이 돼 범죄 세계에 입문한다.
김래원은 대선배인 한석규와의 연기 대결에서도 밀리지 않는다. 한석규가 카리스마로 극 전체를 압도하지만, 그 사이사이를 메우며 긴장감을 불어넣는 것은 김래원이다. 그는 거꾸로 매달리고, 맞고, 때리는 등 거친 액션 연기를 선보인다.
“액션 연기가 많이 몸이 힘들기는 했죠. 제가 예전에 ‘해바라기’(2006)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찍고 나서는 일주일 동안 링거를 꽂고 있었어요. 온몸에 멍도 생겼고요. 하지만 이제는 액션 연기에도 요령이 생겼고, 남의 에너지를 연기나 주변 스태프들을 챙기는 데 쏟을 수 있는 여유도 생긴 것 같아요. 20대 때는 제 연기만 하고 주변이 안 보였거든요. 하지만, 주변을 두루두루 챙기는 것도 주연 배우의 역할인 것 같아요.”
1997년 MBC 드라마 ‘나’로 데뷔한 김래원은 올해로 연기 인생 20주년을 맞았다. 어느덧 촬영장에서 중견 배우가 된 그는 연기에 임하는 마음가짐도 자세도 많이 달라진

듯했다.
“이제는 청춘스타로서 모습보다는 배우로서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제가 주도해서 연기하고, 제가 본 시나리오대로 연기를 했어요. 지금은 연출자의 의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연출자의 좋은 도구가 되어줬다는 생각을 하죠.”
김래원은 한석규를 가장 존경하는 선배로 꼽는다. 7년째 낯시를 함께해온 두 사람은 낯시터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잘 정도로 친한 사이다.
“한석규 선배님은 7년 동안 옆에서 봐왔지만, 정말 한결같은 분이세요. 매일 가족들과 20분씩 통화를 하죠. 촬영장에서 후배들을 많이 챙겨주시고요. 연기를 할 때는 순간적으로 열정적이고 날카로운 면도 보여주시죠.”
김래원은 요즘 톱 탱크스가 주연한 영화 ‘캐스트 어웨이’(2000)에 푹 빠져있다.
“드라마 ‘닥터스’를 끝내고 집에서 쉬면서 ‘캐스트 어웨이’를 우연히 다시 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톱 탱크스처럼 무인도에 표류한 역할을 제가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사실적이고, 삶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이 담긴 영화인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그런 영화에 꼭 출연하고 싶습니다.”

서태지, 데뷔 25주년 “공연 검토중”

가수 서태지(45)가 데뷔 25주년 공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서태지컴퍼니 측은 “한 공연 기획회사로부터 25주년 기념 공연 제안을 받아 미팅을 진행했다”며 “하지만 개최 여부는 물론 구체적인 일정 등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태지는 1992년 3월 23일 서태지와 아이들 1집으로 데뷔했다. 록과 힙합, 국악 등을 혼합한 실험적인 음악으로 청년 세대를 위로하며 1990년대 ‘문화 대통령’으로 군림했고, 1996년 1월 팀 해체 이후에도 솔로 뮤지션으로서 독보적인 입지를 이어갔다.
그는 지난달 21일 생일을 맞아 공식 홈페이지 서태지닷컴에 “생각해보면 25년간 일어났던 수많은 일이 커다란 기적 같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소속사는 2014년 발표한 정규 9집 활동을 총정리하는 DVD를 준비 중이다. /연합뉴스



사드 여파... 하정우 중국 영화 ‘가면’ 출연 무산

배우 하정우의 중국 영화 출연이 무산됐다.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 또는 제한령) 여파로 보인다.
하정우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 관계자는 “하정우가 중국 영화 ‘가면’ 출연 제의를 받고 중국 여배우 장쯔이(章子怡)와 함께 호흡을 맞출 예정이었지만 비자 문제 등으로 출연이 무산됐다”고 15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측에서 비자가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연 무산은 한한령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며 “하정우의 출연 불발로 이번 영화 제작 자체가 무산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하정우는 현재 영화 ‘신과함께’의 막바지 촬영 중이며 차기작으로 영화 ‘1987’과 ‘PMC’, ‘양드레깅’, ‘서울’ 등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재나 불발)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TV블로그 꿈지락 30 아침연속극 (아이 소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소셜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우리말 겨루기(재) 50 팔도밤산(재)	00 인간극장 스페셜	00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재)	00 애니캐러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재)	00 SBS 12 뉴스 3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꿈지락 55 특선다큐 (그래도 행복한 학교 가는길)
1	00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5 네트워킹기획 문화산책 55 코리아엔지니어링 플러스(재)		20 수목드라마 (자재발광 오피스)(재)	55 닥터 365
2	15 이웃집 할스(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재)	30 헬로키즈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00 2시, 뉴스브리핑
3	05 특집다큐 풍격 대한민국, 길 위의 약속(재)	0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키즈 이하! 동물탐대 2 55 내일은 언제나 푸름	20 TV블로그 꿈지락 05 토크쇼서드 화통 55 닥터 365
4	00 4시 뉴스집중	00 누가 누가 잘하나	2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재)	00 4시, 뉴스브리핑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터닝메카드 W 2 30 주간연예수첩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아라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5 일일연속극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24 55 자랑방 손님	5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공사청립특집 8부작 UHD 유네스코 세계유산 55 숨터	00 수목드라마 <김과장>	00 수목드라마 (자재발광 오피스)	00 드라마 스페셜 (사임당, 빛의 일기)
11	00 KBS 뉴스라인 40 특집다큐 블루 월드, 물을 경영하라	10 15주년 기획 해피 투게더	10 세가지색 판타지-반지의 여왕	10 자기야-백년손님
12	35 네트워킹 문화특선 올댓뮤직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20 MBC 뉴스 24 45 휴먼 다크 사람이 좋다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 미리보기 06:00 한국기행(재) <내 랑데우 산다 - 시골박석 산중일기>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인보우 루비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출동! 슈퍼웬스 08:00 당동당 유치원 1~2 08:30 똑딱맨 08:45 Why - 최고대 호기심파악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쥬 09:15 엠마 까투리(재)	09:30 물랑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순두부 수제비와 무말랭이볶음>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00 장수의 비밀 12:40 지식채널e 12:45 명의(재) 13:40 다크영화 - 길 위의 인생
14:30 <에르멘의 친구> 14:30 호기심나라 오키도 15:00 그림을 그려요 15:05 두키 탐험대 15:20 마사와 금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레전드이어로 삼국전 16:15 허풍선이 과학소(재) 16:30 Why - 최고대 호기심파악(재) 16:45 당동당 유치원1~2(재) 17:15 뽀롱뽀롱 뽀로로(재) 17:30 로보카 폴리 17:45 똑딱맨(재) 18:00 생방송 특!톡! 보니하니1~4	19:00 갤럭시 안전 프로젝트 19:30 EBS 뉴스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50 세계테마기행 <은빛 설원의 전설 중국 네이밍구 - 황허의 노래 라오뉴완> 21:30 한국기행 <남도에 가다 - 봄 바다의 전성> 21:50 세계문화기행 - 문화의 길을 걷다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굽먹같은 내 새끼강 24:05 지식채널e 24:10 스페이스 공감 1,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6일(음 2월 19일 壬寅)

子	48년생 모란 그릇에 둥근 뚜껑을 덮으려는 격이다. 60년생 부타 하려 갔다가 오히려 청을 들고 오는 것에 비유할 만하다. 72년생 글도 없이 계속 되면서 피로감을 더 할 수 있다. 84년생 별것 아니니 놀랄 것까지는 없다. 행운의 숫자 : 66, 42	午	42년생 자기 처지를 먼저 생각하고 임하라. 54년생 마음만으로 스스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66년생 결정적인 판단은 보류하는 것이 희망적이다. 78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다. 90년생 속단은 금물이다. 행운의 숫자 : 82, 37
丑	49년생 미연에 방지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61년생 어지간하면 타협하는 것이 가장 낫다. 73년생 핵심보다는 부수적인 곳에 문제점이 숨어 있을 수 있다. 85년생 서로 통하여 말하지 않아도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8, 71	未	43년생 불만이 생길 수도 있으나 해소될 수다. 55년생 방심한다면 실수할 수 있다. 67년생 소홀히 대한다면 남의 원성을 사게 된다. 79년생 한창에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불다. 91년생 남의 일에 나서면 무조건 손해이다. 행운의 숫자 : 20, 60
寅	50년생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62년생 사전에 미리 얘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74년생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으니 경제성을 따져서 판단할 일이다. 86년생 지금 마무리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52, 68	申	44년생 향심으로서 정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6년생 어떠한 국량이라 해도 핵심적인 것을 놓쳐서는 아니 되느니라. 68년생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오류의 근원이 되기에 충분하다. 80년생 순천자는 흥이요, 역천자는 망이니라. 행운의 숫자 : 61, 09
卯	51년생 겉모습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깊이 성찰한 후에 결정을 내려야 후회하지 않는다. 63년생 똑같은 상황이 계속 될 전망이다. 75년생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처지이다. 87년생 평온하게 진행될 것이니 우려할 바는 아니다. 행운의 숫자 : 53, 69	酉	45년생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일이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57년생 오래 계속 될 것이니 각오하고 임해야 한다. 69년생 힘들여 행하지 않아도 저절로 변하여 잘 될 것이다. 81년생 자연스러운 것이 제일 좋다. 행운의 숫자 : 75, 65
辰	52년생 도리에 맞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는 것이 낫다. 64년생 함께하고 있었다더라도 미처 의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76년생 파격적인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88년생 잘 되어 가고 있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행운의 숫자 : 74, 11	戌	46년생 오직 통일원 원리로 일관성 있게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58년생 미끼일 수 있으니 유혹에 넘어가서는 아니 된다. 70년생 눈요기에 그쳐야 담석 물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82년생 안되면 되게 하라. 행운의 숫자 : 68, 33
巳	53년생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제일 현명하다. 65년생 먼저 논의 되어야만 비난을 받지 않는 법이다. 77년생 실용성의 관점에서 이해하여야만 생산성을 도모할 것이다. 89년생 가까스로 안도의 한숨을 쉬리라. 행운의 숫자 : 52, 64	亥	47년생 정도를 걸으면 해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59년생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미리 계산하고 들어가야 한다. 71년생 상호 공존하는 성공을 만들어 가자. 83년생 가시적인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미리 대안을 마련함이 좋다. 행운의 숫자 : 76, 4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